

대학의 역할, 창업과 혁신의 산실

홍승일 |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이코노미스트 대표이사

올해 27세인 박수왕 씨는 소셜네트워크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한다. 마크 저커버그가 학창 시절 학내 교우 간 소통을 위해 시작한 것이 페이스북이라는 현대의 대박을 낳았듯이 박 사장도 '원 캠퍼스'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꿈을 키운다. 각 대학의 도서관 열람실의 진여석 등 학사생활 안팎의 생활정보를 두루 제공해 100만 명의 대학생 회원을 모았다. 그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기숙학원 김치 납품 등 사업으로 돈을 꽤 벌다가 불의의 소송을 당해 큰 빚을 진 채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병영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선 끝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군대에서 배웠다』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 인세로 빚을 다 갚고 남은 돈 5,000만 원으로 지금의 회사를 차렸다.

월간 포브스코리아의 창간 10주년호인 3월호에는 이러한 젊은 사업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특집을 꾸렸다. 34만 원짜리 보청기를 만들어 가난한 노인들의 귀가 돼 주는 딜라이트라는 사회적기업의 김정현(27) 사장, 각계 3,000명 넘는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임팩트의 한동현(31) 사장, 보고픈 영화 맞춤 추천 서비스에서 네이버와 맞먹는 프로그램의 박태훈(28) 대표도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넘치는 까와 도전정신, 창의력으로 지식창업의 길을 넓혀가는 젊은 리더들이다.

서설이 좀 길었다. 이런 젊은 사업가들을 보면서 문득 떠올린 오늘날 우리 대학의 처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청년 취업 대란과 넘치는 '이태백(20대의 태반이 백수)' 탄식 속에서 과연

대학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태부족인 현실은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도 어찌 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창업'의 대안을 시도할 수 있게 우리 대학들은 얼마나 '괜찮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베풀고 있을까.

필자가 대학을 나온 1980년대 중반만 해도 국제 유가, 금리, 환율이 모두 낮은 이례적 '3低' 호황 덕분에 적어도 취직은 걱정이 없었다. 웬만한 대학 졸업장 하나 들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이나 은행, 증권, 보험사 들어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만에 대학 졸업생의 5% 정도만 대기업 직장 문턱을 넘는 시대로 돌변했다. 20대 청년 수백만 명이 '월수 88만 원 세대'로 '알바' 인생에 몸을 던지고 있다. 단군 이래 평균 학력이 가장 높고 똑똑하며 외국어 잘하고 스펙을 갖춘 세대라는데…….

대학 입장에서든 곤혹스러울 것이다. 졸업장만 쥐어 주면 제 갈 길 알아서 잘 찾아가던 시절을 지나 이제 혹심한 취업난을 돌파할 수 있는 재주까지 길러줘야 한다. 1970, 1980년대만 해도 학자뿐만 아니라 어린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칼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이라든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 같은 책들이 교양서적처럼 널리 읽혔다. 대학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나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활발했다. 하지만

캠퍼스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대학이 상아탑에 너무 머문다는 비판이나, 사회인 양성소라는 비아냥 모두 두 박하고 촌스러운 이분법으로 치부된다. 그런 논의가 무의미하다기보다 재앙과 같은 작금의 청년실업 사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 한가하게 들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생 10명 중에 7명이 대학에 간다. 대중적 교육기관화 돼 가는 대학에게 과거처럼 학문적 수월성 추구니, '文史哲'의 고고한 가치니, 순수과학의 계승발전이니 하는 말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 교육당국과 대학 당국 모두 망국적 청년실업을 완화하려는 데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듯 하다. 예산지원이라는 당근을 동원해 취업률이 떨어지는 대학을 홀대하고 많은 대학들은 취직이 잘 되지 않는 인문학 관련 학과들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있다.

취직이 안되면 창업이라도 희망을 걸어봐야 한다. 다행히 앞서 소개한 젊은이들처럼 취업 대신 창업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들을 대학들이 도울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짚어질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선구자적인 기초과학 연구로 초일류 기업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병영조차 창업의 산실로 만드는 창업국가가 되기 위해 대학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첨단 지식을 맛깔스럽게 전달하는 온라인 강좌가 쏟아지는 시대에 여전히 낡은 강의노트를 부동켜 쥐고 정년 보장에 안주하는 교수는 곤란하다. 꿈을 펼칠 무대조차를 찾지 못하고 청년들이 늙어가는 통탄의 시대에 대학의 스승들은 제자들이 강의실과 연구실 안팎에서 창의성과 독립성을 키워나가는 일에 진정한 멘토가 돼야 한다.

대학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창업을 북돋는 일 이외에도 혁신적 발상으로 인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은 적잖다고 본다. 속칭 인기학과는 인기학과 대로, 비인기학과는 비인기학과 대로



인재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방안이 많다. 가령 로스쿨이나 의과대, 경영대 등으로 우수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다. 안정된 삶, 부유한 삶을 꿈꾸는 인간의 본성을 탓할 수 없다. 오히려 기왕에 몰린 인재들을 활용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영리병원 시대가 되면 유능한 의사들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역군이 될 수 있다. 의사가 너무 많아진다면 생리학 등 기초의학 분야로 의대생들을 돌릴 수도 있다. 스마트한 법률가 집단은 법률시장 개방을 맞아 한국으로 밀려드는 선진 로펌의 대항마 역할을 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근래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도 '문사철' 관련 학과의 홀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졸업 후 취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 전도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등 역할이 기대된다.

'대학의 이념'에 더해 '대학의 개념'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더해 '직업을 위한 학문'이 좀 더 실사구시적으로 공론화 됐으면 싶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UC버클리 대학 동아시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중앙일보 기자로 경제부문 부장을 지냈고, 코리아중앙데일리 부국장, 중앙SUNDAY 경제에디터 등을 거쳤다. 현재 포브스코리아, 이코노미스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한국을 먹여살릴 대표 산업』, 역서로 『객가의 철칙』, 『일본 글로벌 경영의 비밀』, 『맨유 퍼커슨 감독 자서전』, 『클린턴 시대 미국 장기 호황의 비밀』 등이 있다.